

# KIA 김도영, 4년 차 최고연봉 '5억원'



KBO리그 역대 4년 차 최고 연봉 기록을 세운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구단과 연봉 계약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400% 인상' 구단 역대 최고 인상률 기록, 이정후 넘어서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는 선수되겠다" 5년 차 기록 도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또 한 번 KBO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역대 4년 차 선수 가운데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KBO 리그 최고의 스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KIA 구단은 21일 "김도영과 지난 시즌 연봉(1억원)보다 4억원 인상된 5억원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김도영은 종전 4년 차 최고 연봉자인 이정후(전 키움·현 샌프란시스코)의 3억9천만원을 1억1천만원이나 넘어서며, 역대 4년 차 최고 연봉액을 기록했다.

또한, 연봉 인상률도 400% 기록하면서 구단 역대 최고 인상률(종전 2015년 양현종 1억2천만 원→4억원, 2024년 최지민 3천만 원→1억원, 인상 233.3%)까지 경신했다.

KBO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FA와 다년계약을 제외하면 2020년 하재훈(SSG)의 455.6%(2

천7백만 원→1억5천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2022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김도영은 그해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2023년 5천만 원, 2024년 1억원으로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규 시즌 MVP와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정규리그 141경기에 출전한 그는 장타율(0.647)과 득점(143) 부문에서 타격 2관왕을 차지하며 리그 유일의 '다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뿐만 아니라 KBO 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최연소 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최소타석 내추릴 사이클링 히트 등 역대급 대기록들을 쏟아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5경기 4안타 1홈런 3득점 5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 통산 12번째 우승의 주역이 됐다.

재계약을 마친 김도영은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구단에 감사하다. 만족스러운 계약을 하게 돼 기쁘면서도 올 시즌 더 잘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연차를 거듭할수록 계속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며 "지난 시즌 팬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그라운드에서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팬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올 시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KIA 구단은 김도영과의 이번 계약을 통해 그가 팀의 핵심이자 리그의 대표 선수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팀 내 최고 인상률과 역대 4년 차 최고 연봉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운 김도영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는 KIA가 김도영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팀 재건과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김도영은 이제 이정후와 강백호(KT wiz)가 공동으로 보유한 5년 차 최고 연봉(5억5천만 원) 아성에 도전한다. 6, 7년 차 최고 연봉은 이정후가 받은 7억5천만 원, 11억원이다.

/주홍철 기자



지난 20일 열린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남자부 리드에서 우승한 이영건(가운데) 시상대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 제공>

## 월출마당산악회 이영건 아이스클라이밍 리드 우승

한국 아이스클라이밍 리드 종목 '남녀 간판' 이영건(전남·월출마당산악회)과 신운선(서울·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이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우승했다.

대한산악연맹은 20일 "지난 18일 경상북도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이영건과 신운선이 각각 남녀부 리드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선발 1차전을 겸해 치러졌다. 아이스클라이밍은 15m 높이의 빙벽을 아이스바일과 아이젠 등 장비를 사용해 오르는 동계 스포츠다.

남자부 리드에서는 이영건에 이어 임재준(전북·군장대학교 산악부)과 박희웅(서울·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이 2-3위에 올랐다.

여자부 리드에서는 신운선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김혜준(충북·타기클라이밍), 김진영(전북·클라이밍)이 2-3위로 시상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 피겨 차준환 'IOC 선수위원 도전'

### "유승민 위원과 대화하며 꿈 키워"…원윤종과 국내 후보 경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장을 낸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은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통해 꿈을 키우게 됐다고 밝혔다.

차준환은 2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 대표단 활동 당시 스위스 로잔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당시 준비과정에서 유승민 전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차준환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그때부터 조금씩(선수위원) 꿈을 가지게 됐고, 마침 도전 기회가 생겨서 지원을 결심했다"며 "도전 자체가 내겐 큰 영광"이라고 했다.

이윽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한국 후보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환은 지난 1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IOC 선수



위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다.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기 위한 선거직선 동계올림픽에 참가했거나 선거가 있는 올림픽에 출전해야 하고 IOC 공식 언어인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차준환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그때부터 조금씩(선수위원) 꿈을 가지게 됐고, 마침 도전 기회가 생겨서 지원을 결심했다"며 "도전 자체가 내겐 큰 영광"이라고 했다.

이윽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한국 후보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환은 지난 1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IOC 선수

/연합뉴스

# "특급유망주 아닌 빛고을 특급스타 되겠다"

## "2025시즌을 기대하라" 광주FC '특급 유망주' 이재환의 남다른 포부

### "데뷔전 멀티골 목표... 개막전부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신인의 패기로 '광주만의 축구'에 녹아들 것...담대함은 나의 장점

광주FC의 '특급 유망주' 이재환(18)이 남다른 배포로 K리그 데뷔전을 꿈꾸고 있다.

광주는 올 시즌을 앞두고 191cm 장신 스트라이커 이재환을 영입했다. 아마무대에서 '특정왕'을 휩쓸면서 연령별 대표팀을 지낸 그는 광주 동계 훈련에 참가해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자신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재환은 "스트라이커에서 필요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 박스 안에서 위치선정이 장점"이라며 "골을 못 넣는다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무조건 시도하겠다"고 신인답지 않은 담대함을 뽐냈다.

넙치는 자신감만큼 본인의 개선점 또한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이재환은 "수비적인 부분은 신경 많이 쓰고 있다"며 "경기를 많이 뛰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부분과 수비 기량 능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보완돼야 강점을 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독님의 가르침 하에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효불'에 폭 빠져있는 이재환은 "데뷔전 데뷔골은 식상하니까 멀티골을 넣겠다"고 남다른 포부를 밝히며 "광주라는 좋은 팀에서 프로에 데뷔하게 됐는데 동계 훈련 열심히 잘해서 개막전부터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신은 어떤 선수인지  
-스트라이커에서 필요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적인 부분,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한 피니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광주에서 훈련을 해본 느낌은  
-K리그에서 광주FC라는 축구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쟁겨봤다. 패스, 속도감이나 이런 게 빠른 것 같은데 훈련에서도 아니냐 다를까 정말 빠르다. 영상으로 볼 때도 엄청 다이나믹하고, 유기적인 움직임, 패스의 질 이런 게 눈에 띄었는데 팀포가 더 빠르고 캘리타가 더 좋았다.

▲광주 전술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일단은 스트라이커라는 자리가 더 받아줘야 하는 것,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부분 등 여기와서 '스트라이커가 이런 움직임을 하거나 이런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감독님 전술을 여기와서 처음 알았다.

▲이정호 감독의 축구가 쉽지 않는데, 경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이정호 감독과 함께 하고 싶어서 광주FC로 왔다. 워낙 명망이시다. 아무래도 감독님 축구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감독님의 지시 사항을 잘 따라야 할 것 같고, 스트라이커는 외국인 선수가 많이 활약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

▲광주 축구는 공격만 잘해서는 안 되는 축구인데  
-공격만 하면 경기를 못 땀다. (체력 준비를 위해) 오전이나 저녁이나 따로 훈련하면서 형들 체력 맞추려고 하고 있다.

▲공격수로 노력하는 부분과 자신 있는 부분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 도전장을 던진 '특급 유망주' 이재환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광주FC 제공>

-결정짓는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연습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된다. 개인적으로 스트라이커는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이 1순위로 된 것 같다. 골을 넣을 수도 못 넣을 수도 있는데 못 넣더라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차야 한다. 실패했다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 진짜 싫어한다. 기회가 오면 무조건 시도해야 한다. 넣으면 주인공이 된다. 골을 못 넣으면 욕은 먹겠지만 그런 걸 감수하는 게 스트라이커의 몫이다.

▲동계 훈련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신경 쓰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수비다. 수비적인 부분을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번 시즌에 많이 뛰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부분과 수비가 담 능력이 돼야 한다. 그래야 강점인 공격적인 부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비에 신경 쓰고 있다.

/박희중 기자

## '컷 탈락' 임성재 명예회복 나선다

### 내일 개막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출격

임성재가 명예 회복에 나선다. 임성재는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개막전 더 센트럴에서 3위에 올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음 대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통산 3승에 도전했지만, 충격의 컷 탈락을 당했다.

첫날 공을 3개나 물에 빠트리며 5오버 7타를 친 부진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PGA 투어 183개 대회에 출전한 임성재가 컷 탈락한 것은 38번 뿐이었다.

작년에도 26개 대회에 나선 그가 컷

을 통과하지 못한 건 딱 6번밖에 안 된다.

그만큼 임성재에게는 컷 탈락은 낯설고 민망스러운 일이다.

임성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이 열리는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좋은 추적이 많다.

6년 출전해서 5번 컷을 통과했고, 2002년 6위에 이어 2023년에는 4위에 올랐다.

임성재는 직전 대회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과 작년 이 대회 컷 탈락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임성재가 우승하면 최경주의 한국인 PGA 투어 최다 통산 삼승 기록 경신도 가능하다. /연합뉴스